



문 : 1년에 1~2번 기생충 약을 약국에서 사다가 식구가 함께 복용 하는데 기생충에 관한한 안심해도 되는지요?

답 : 기생충 감염율이 70% 정도이던 60년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가지 이상의 기생충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생충약을 먹으면 충체가 배출되는 것을 보아 눈으로 직접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약 13% 정도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으며 매년 2회씩 검사를 받아온 학생층에서는 감염율이 약 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기생충약을 투약하는 것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사람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되어 경제적인 낭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생충약은 모든 기생충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검사를 받고 감염된 기생충을 확인한 후에 그 기생충에 알맞는 약을 선택하여 체중에 따라 적당한 양을 복용하여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생충에 맞는 약이 아니면 아무런 효과도 기대 할 수 없으며 약에 의한 부작용도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약 40여종의 기생충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 : 아빠가 간염에 걸렸다고 하는데 가족에게 전염은 안되는지요?

답 : 간염 검사결과 항원 양성자는 간염 Virus가 침입됐다고 판정되며 다른 사

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가족중에 한사람이 감염 되었다면 그 가족은 전염의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가족중에 한사람이 감염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전가족이 감염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간염은 전염되는 질환이지만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감염율은 달라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간염의 감염 여부는 검사를 받아 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일단 검사를 받아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간염은 간경화나 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 약제가 없는 상태이므로 간염 검사결과 항원 음성으로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면 이미 간염에 걸렸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왔다면지 예방 접종을 받고 간염 Virus가 침입했을때 막아낼수 있는 방어 능력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간염에 감염되어 있음이 확인된 아빠는 간기능 검사를 받아 보시고 혹시 간염이 만성화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사연구부 자료제공)